

思想의 俗惡化에 抗하여 唯物 辨證法 [제1회 上中下]

黃郁

모든 事物의 進化發展이 決코一路上向의 □을 달아서 前進하는것이 아니라, 一進一退하면서 所□씩작코-순를 밟으며 進展된다는 것은 지금은 모든 사람의 常識이 되어 있는 辨證法이 가르치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事物은 辨證法的으로 發展하여 進化한다는것은 지금은 모든 사람의 常識되어 있다. 그러므로 勿論 人間의 想惟, 卽 사람들의 모든 생각, 思想도 辨證法的으로 一進一退 하면서 進展되어 나가는 것이니, 不斷히 變化하는 人間의 思想-따라서 辨證法的 思想도 辨證法的

原則의 支配下에 進展되는것은 □□한 學者들의 說明을 기다릴 것도 없이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나 여기에 注意할것은 事物이 一進一退하면서 進展한다는 境遇의 「一退」라 하는 것은 決코進展의 停止를意味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우선 모든 事物은 「正-反-合」의 過程을 밟아서 發展한다는 辨證法그것을 例로 보아도 어떤 때는 그 思想이 눈에 띄우게 進歩하는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思想은 漸漸 세상에서 忘却되는듯한 때도 있으나, 그 忘却되는듯한 時期에 있어 서도 그것은 그進化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歐洲大戰以後 十四五年間」은 唯物論과 聯結되어 辨證法은 世界思潮의 主流가 되어 왔으나, 最近一, 二年에 그것은 잠간 그 勢力을 잃은 듯이 보이고 그것은 積極적으로 高唱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더욱이 文化運動의 表面에 나타나는 바만을 가지고 볼 때, 그것은 후지부지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케 볼 때 辨證法은 唯物論과 한 가지 한날 過去의 물건같이도 보일 것이다. 그러나 果然 「唯物論과 辨證法」은 지금 그

進展을 停止하였느냐하면 決코아니다. 이 思潮가 비록 表面에서는 그 進

展을 멈춘듯하면서도 여러 가지 方法으로 漸漸 더 下層 社會成員사이에 廣布되고있는 事實을 否定할 수 없을 것이요, 또 그뿐 아니라 누구든지 辨證法과 唯物論乃至 唯物史觀과 關聯없이는 그의 思想을 發布 또는 宣傳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비록 숨은 形態에 依해서나마 辨證法과 唯物論은 進展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單純히 그 皮相에 依해서만 보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點에 留意할 것이요, 이點을 보지 않는 사람은 辨證法을 아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봄날에 思索함이 없이」 思想을 俗惡化하는 사람들은 우와 같은 辨證法의 現段階를 故意로나 또는 無意識적으로나 正解하지않고 오직 唯物論과 辨證法의

吊鐘을 울리기에만 汲汲하다. 그들은 말한다-「唯物論은 人類思想의 發展階段에서 한 「테-제」이 었었다. 「테-제」는 「알티테-제」를 낳고 이 두 가지 「테-제」는 또 새로운 「테-제」를 낳고 그新 「테-제」는 다른 「안티테-제」를 낳는다. 이 끝없는 「아우프헤-□」의 過程에 唯物論만이 最後의 階段이 될 수 없다. 다음은 心的時代다. 唯物論時代는 끝나고 唯心論時代, 宗教時代가 온다-」이리하여 그들은 唯物論과 辨證法의 現段階를 그 滅亡의 時期로 본다. 이러한 論議는 唯物論과 辨證法이 그 發展途中의 下向時代(一退時)에 있을 때마다 反復되는것이요, 反復될때마다 그 論議는 漸漸더 俗惡化한다. (辨證法은 지금에 이르러 俗化된다느니보다 모욕을 당하고 있다!)우리는 이럴 때마다 唯物論과 辨證法의 아주 初步를 反復하지않으면 안 된다. 卽 「테-제」가 一定한 時日이 걸려 一定한 發展을 하기 前에는 「안티테-제」는 안 생기는 것이고, 「안티테-제」가 일정한 發展을 해야 「테-제」와 一定한 對立抗爭을 한後가 아니면 「진테-제」(合)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리고 「진테-제」(合)는 單純한 「테-제」(正)의 反復이 아니라 等等 또 唯物論에 □하여서는 現在의 唯物論은 決코 佛蘭西式 唯物論-사람도 單純한

機械로 보고 人類精神의 獨立性을 無視하는 機械的 唯物論이 아니고, 物質과 精神, 肉體와 心, 環境과 人生사이의 相互 原因關係를 認定하되, 各各後者는 前者를 反映하며 前者의 作用이며 前者의 影響을 받는 것으로 보는 新唯物論이고, 사람은 環境의 影響을 받는 것인 同時에 또 能動的으로 環境을 變改하는것임과 마찬가지로 사람의精神은 肉體의 作用이면서도 肉體를 어느 程度까지 統制하는 것이요, 사람의 意識은 自然界 物質의 描寫이면서도 自然을 어느 程度까지 驅使하는 것으로 보아 精神의 獨立性을 確認하는 唯物論이라는 等等 다시 말하면 現在의 唯物論, 正確히는 辨證法的 唯物論은 從來의 唯心論과 唯物論 「진테-제」라는 說明을 우리는 이 俗惡化한 辨證法에

依한 論駁이 잇을 때마다 反復하여왔다.

그러나 從來의 모든 論駁은 그意□에 잇어서, 그다지 俗되고 惡하고 攻擊的인것이 아니요. 自己들의 立場을 擁護하는 辨證法의 「誤謬」를 指摘하라는 것이었으나 近來의

論駁은 그러치 아니하다. 그 證據로는 그들은 辨證法을 曲解아야가지고 (故意로?)그것을 武器로 辨證法을 破壞하려들지않는가. 그들은 自己들의 唯心論을 豫言하면서 唯物論의 終焉을 廣布하려한다. 그러면 이런 論駁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